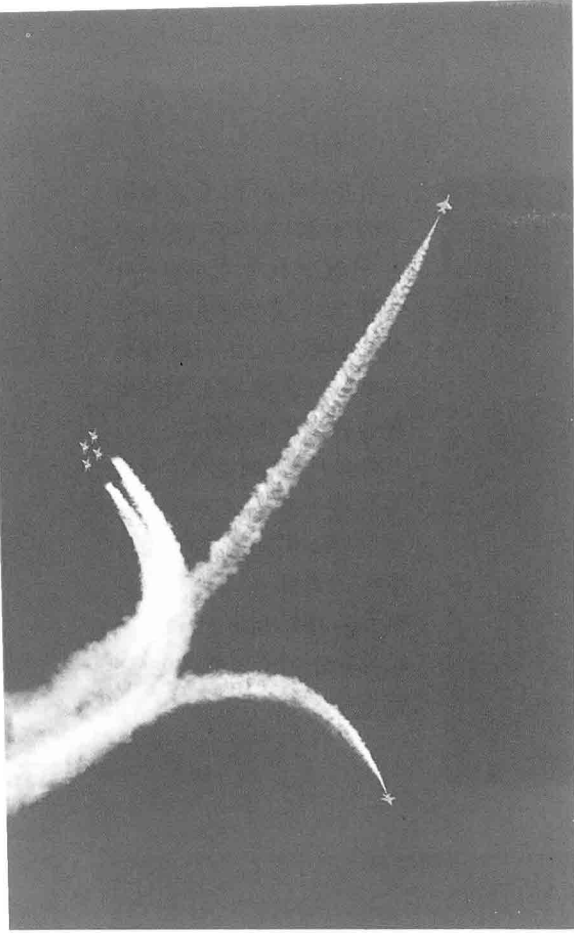


미리보는



SEOUL AIR SHOW '96

7th 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Symposium & Air Show



서울의 가을 하늘에서 러시아 최신예 전투기 수호이-35(Su-35)를 비롯해, 프랑스의 Rafale기, 미국의 F-117 스텔스기, 현재 배치된 전투기중 최고의 전투능력을 갖춘 F-15E 이글이 그 기량을 뽐내게 된다.

서울에어쇼 '96 공동운영본부(공군·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서울공항(성남소재)에서 열리는 서울에어쇼 '96에 참가가 결정된 러시아 항공기 가운데 프로펠러기인 Su-29M과 Su-31M은 곡예비행에 참가하여 멋진 묘기를 선보일 계획이며, 그외에도 미국의 복엽기 3대로 구성된 민간곡예비행팀, 대형 태극기와 서울에어쇼 엠블럼을 달고 고공점프하는 호주의 비행팀 등이 참가하여 관중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참가가 확정된 업체는 국내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대한항공, 현대우주항공과 미국의 Lockheed Martin, Boeing, Bell, Sikorsky, 영국의 BAe, 프랑스의 Aerospatiale, Dassault, 독일의 Daimler-Benz, 러시아의 Sukhoi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좌의 전천후 제공 및 대지공격의 2중 임무전투기로 현용 최고의 전투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F-15E Strike Eagle기.

M.D.社가 제작하였고, 최대속도 마하 2.5이상, 실용상승한도 30,500미터, 항속거리 4,445km(2,400NM) 전투행동 반경 1,270km, 최대무장적재량 11,113kg이다. 무장능력으로 사이드 와인더, AMRAAM, 스페로우, 매버릭, 하푼, HARM, CBU 계열 확산탄, GBU 계열 레이저 및 전자광학 유도폭탄, MK 계열 일반 폭탄과 특히 B-57, B-61 핵폭탄의 적재도 가능하다.



▲ 서울 에어쇼 '96 행사장 조감도

서울에어쇼 '96에 통합하여 개최되는 군수산업전시회는 국내 20여개 방산업체와 해외 50여 방산업체가 참가 신청 중에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는 각종 지·해상 방산제품이 전시될 계획이다.

이번 서울에어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을 지닌 전투기들의 기량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동시에, 미래의 하늘을 주름잡을 차세대 전투기들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대공 요격, 공대지 공격 및 대공화기 제압 등의 다목적 기능의 Rafale기.

스텔스성과 소형 경량화를 위해 신소재를 많이 사용하였고 전방 동체 및 날개의 조종면은 탄소 복합재를 사용하였다. Dassault사가 제작하였고, 최대속도 마하 2, 전투행동반경은 공대공 1,800km 공대지 1,075 km, 최대이륙중량 21,500kg, 최대무장적재량 6,000kg이다.

무장능력은 Matra사의 Mica, R550 매직 공대공 미사일과, AS-30L AM-39 엑소세, ARMAT 및 BGL 레이저 유도폭탄이 탑재된다.





◀ 방공 및 대지공격 겸용의 다목적 전투기 F/A-18 호넷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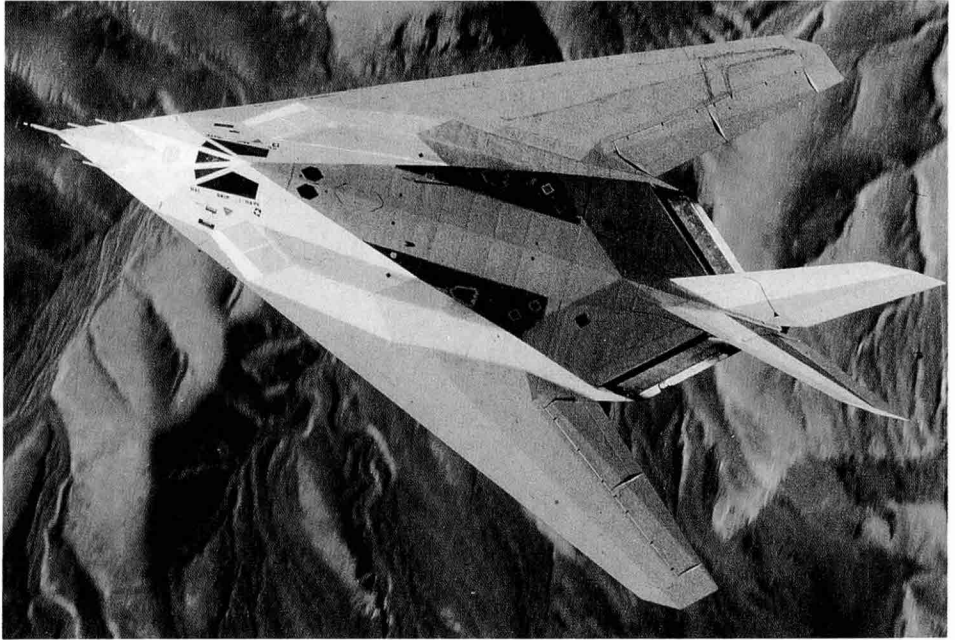
전천후 공대공 전투 및 공대지 공격용 전투기로 최대속도 보다는 천음속 영역에서의 가속성과 선회율 향상 및 큰 받음각에서의 기동시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설계되었다.

McDonnell Douglas社가 제작하였고, 최대속도 마하 1.7이상, 실용상승속도 15,240m, 항속거리 3,706 km(2,000NM), 전투행동반경은 공대공 740km 공대지 1,063km, 최대이륙중량 25,402kg 최대무장탑재중량 8,618kg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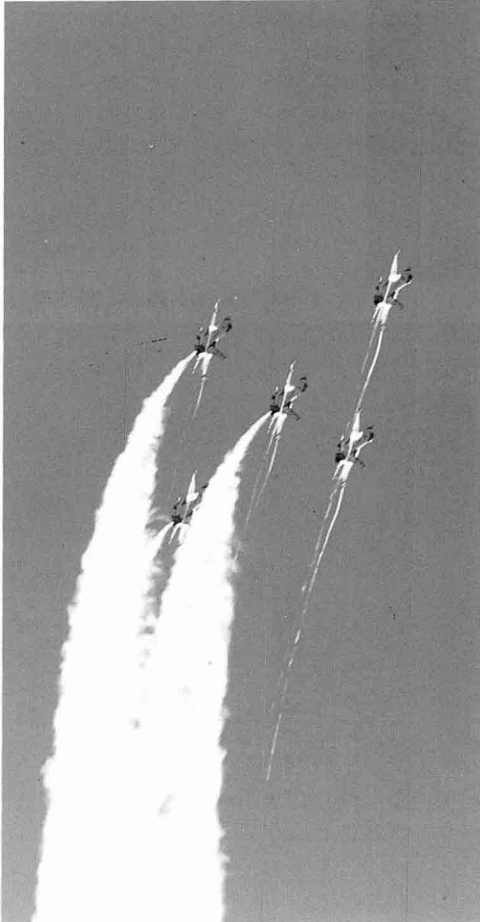
무장 능력은 AIM-7F 스페로우, AMRAAM, AIM-9L 사이드와인더, AGM-65G 매버릭, AGM-80 HARM, AGM-84 하푼, AGM-84 SLAM 등의 미사일을 장착한다.

▼ 러시아의 최신형 SU-35 전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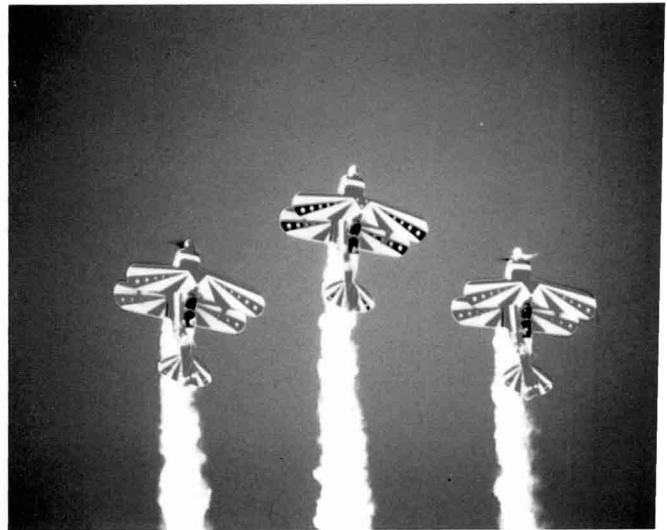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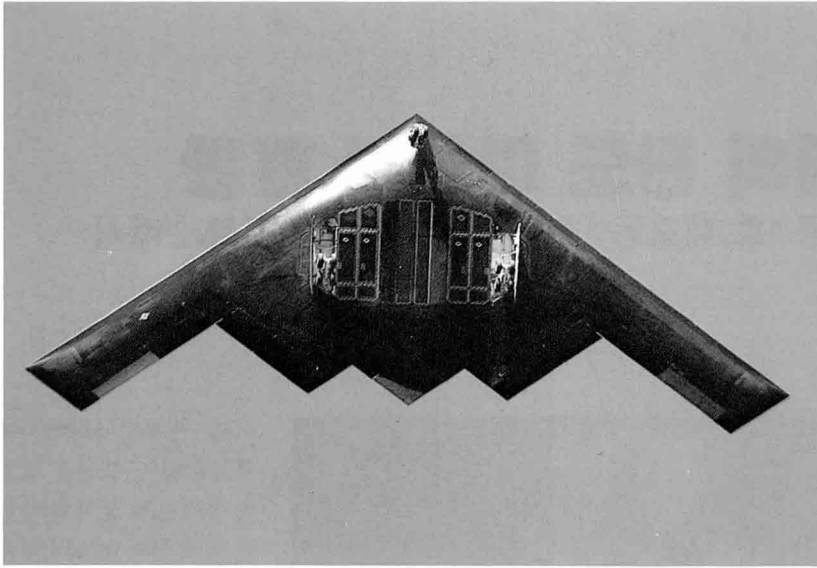


▲ 레이더 반사파를 없애기 위해 레이더 흡수물질 RAM으로 기체를 도장하고 모든 표면이 수직으로 30도 이상 각지게 하여 레이더파를 상하로 분산시키는 F-117A 스텔스기. Lockheed사가 제작하였고, 최대 속도 마하 0.95, 전투행동반경 806km 최대이륙중량 23,814kg이다. 무장능력은 매버릭, Pave Way II, III, GBU-15, GBU-27, B-61 자유낙하 핵무기, HARM 등을 장착한다.



▼ 서울 에어쇼 '96에 참가하는 미국의 씨에라 에이스(Sierra Aces Aerobatic)





◀ 동체 및 꼬리 날개가 따로 없는 Flying wing 방식으로 제작되어 기체구조가 가볍고 적재능력이 뛰어난 B-2 스텔스 폭격기.

최대 순항속도 1,047km/h, 최대항속거리 10,645km, 최대이륙중량 167,831kg, 최대무장적재중량 22,680kg이다. SRAM II, B-83, B-61 자유투하식 폭탄 및 500, 750, 1,500lb 폭탄 등이 탑재된다.

▼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개발한 스텔스성과 고도의 전투능력을 갖춘 Eurofighter 2000.



▼ 낮은 레이더 피탐지율, 높은 기동성 및 민첩성, 후연기 사용없이 초음속 순항능력 등을 갖춘 차세대 제공전투기 F-22.

